



최서면 원장님, 병실 밖은 신록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원장님,

국제한국연구원의 원장이라고 해서 ‘원장님’이라고는 부르지만, 평소에는 쓰지 않던 호칭이라 역시 어색하네요. 1월부터 통원치료를 받으시다가 4월 초부터 경기도 용인의 S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장기입원하던 날이 마침 아흔두 번째 생신이었다니, 누구도 세월의 무게는 피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왠지 명치께가 빠근합니다. 코로나를 핑계 삼아 문병조차 가지 않은 무례를 용서 바랍니다. 생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날 《한일관계 막후 60년-최서면에게 듣다》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원장님을 상대로 일본의 한국전문가 4명이 7년간 17차례 70시간을 채록해서 2018년 3월에 발간한 <최서면 오를 히스토리>를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몇 개월이라도 빨리 냈더라면 직접 전해 드리고 애정 어린 꾸지람이라도 들었을 텐데, 원장님의 용태가 책을 읽을 상황이 못 된다는 말을 듣고는 저의 게으름을 탓할 뿐입니다.

책까지 내고 보니 새삼 원장님과의 인연이 떠오릅니다. 1986년경인가요, 동아일보 초년 기자 시절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원장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몽골에서 막 돌아온 원장님의 구술을 받아 기사를 썼는데, 지금은 말젖으로 만든다는 ‘마유주’ 밖에 떠오르는 게 없네요. 그 후 제가 도쿄특파원으로 일하면서 원장님과 술잔을 기울일 기회가 가끔 있었고, 원장님이 30년간의 일본 생활을 청산하고 1988년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종종 뵈면서 결국은 원장님의 일생을 정리한 책까지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번역을 시작해서 책이 나올 때까지 줄잡아 1500시간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동안 저는 원장님과 ‘정신적 동거’를 한 느낌입니다. 우연(偶然), 인연(因緣), 애연(愛緣)의 3연(三緣)이 만들어준 결과이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책을 번역하면서 느낀 것이 참 많습니다. 우선은 부끄러움입니다. 한국인 최서면을 일본인 학자가 일본어로 인터뷰한 것을 한국어로 번역해야 하다니...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원장님을 인터뷰한 4인 그룹의 책임자,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 교

수는 일본어 구술자료집의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의 기억, 여러 사람을 위한 기록’이라는 글을 실어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습니다. 무릎을 쳤습니다. 원장님을 인터뷰하는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짚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장님은 여러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다양한 기억을. 당신은 안중근 의사의 옥중자전인 <안응칠역사>와 유묵들을, 야스쿠니신사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던 <북관대첩비>를, 조선이 만든 현존 동양 최고(最古)의 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발굴해 한국으로 가져 왔고, 이봉창 의사의 사형재판기록을 일본최고재판소에서 처음으로 열람하고 공개했으며, 동경한국연구원을 설립하고 학술지 <韓>을 창간해 일본에 한국학이 뿌리를 내리는데 기여했습니다. 독도 관련 지도 수집에서도 당신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지요. 박정희 대통령, 후쿠다 다케오 총리 등 양국 거물들과도 친분이 깊어 김대중납치사건이나 7·4남북공동성명 등 양국이 정치적으로 고비를 맞을 때마다 막후에서 해결사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 원장님을 ‘한일관계사 연구의 선구자’ ‘안중근과 독도 연구의 1인자’ ‘한일관계의 막후 괴물’ 등등으로 부르는 것은 과공이 아닙니다. <안응칠역사>를 일본인 학자가 먼저 사 간 것을 알고는 바로 쫓아가 “신생 한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만 한다”고 큰소리치는 모습에서는 슬쩍 ‘애국자’의 냄새도 풍깁니다.

사실 그런 일을 하면서 일본에게 불리하거나, 일본을 불편하게 한 일도 많았잖습니까. 그런데도 일본은 원장님의 기억을 복원하려고 시간, 정성, 경비를 아끼지 않았 습니다.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인 최서면 원장은, 한국 정부가 지원해서, 한국인 학자가, 한국어로 인터뷰를 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걸 일본 사람이 일본어로 번역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디선가 게으른 후학의 어깨를 후려치는 죽비 소리가 들 려왔습니다.

원장님이 한일관계사 연구에 몰입하게 된 경위도 신기합니다. 장면과 친하다는 이 유로 이승만 정권의 미움을 사고, 급기야는 일본으로 망명까지 해야 했던 29살의 청 년. 당신에게 일본은 의지가 없었던 무인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인도에 당신을 내친 조국을 속속들이 파헤친 사료가 그득했습니다. 구조선이 올 때까지 사료를 태워 추위를 피하고 끼니 때우기에 골몰할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테니 외로움을 뒤로하고 사료를 읽을 것인가. 당신은 ‘임시체류허가’라는 불안을 누르고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파묻혀 한국관계 자료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원장님의 그런 ‘이해하기 힘든’ 선택이 지금의 원장님을 만드는 숨은 에 너지였는지도 모릅니다. ‘안개꽃’의 ‘안개’라고나 할까요. 꽃집에 가서 ‘꽃’을 달라고 하면 꽃집 주인은 황당해하겠지만, 아마 ‘안개’를 달라고 하면 ‘안개꽃’을 줄 것입니다. 안개는 꽃이 아닌데도 ‘안개꽃’을 규정하듯, 원장님을 규정하는 것도 꽃처럼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지금껏 주목받지 않은, 안개 같은 그 무엇이 아닐까요. ‘그 무엇’이 무 엇인지 한 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책을 번역하며 제 나름으로는 짚어낸 게 있 습니다. ‘사실(史實)’에 대한 경외 ‘상대에 대한 경의’ ‘아프지만 따뜻한 경고’ ‘자만과 폭주에 대한 경계’ 등 ‘4경’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원장님의 입을 거 치며 “비판은 하되 상대방의 시각도 고려해야 한다” “독도가 일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곧 한국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일본은 사과한 것만 기억하고, 한국은 사과를 부인

한 것만 기억한다” “근거는 풍부하게 대고 해석은 최소한으로 한다”는 등등의 말로 구체화된 것이 아닐는지요. 그래서 당신의 비판은 ‘세다’ ‘약하다’가 아니라 ‘아프다’는 말을 들었고, 당신의 지적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새롭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한일 간의 첨예한 현안을 설명하며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가는 해를 보고, 학자는 구름을 보고, 고위관료는 천둥과 번개를 보고, 실무진은 비를 보고, 언론은 진흙탕을 본다.” 정치가는 국민의 뜻만 거스르지 않으면 되고, 학자는 이상적인 방안만 제시하면 되고, 고위관료는 여론의 질타만 피하면 되고, 실무진은 현실만 추종하면 되고, 언론은 비판만 하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가, 학자, 고위관료, 실무진, 언론 할 것 없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으니까요. 해부터 진흙탕까지를 복안(複眼)으로 보고, 일본에 있을 때는 한국을, 한국에 있을 때는 일본을 배려했던 원장님 같은 분은 이제 더이상 나올 풍토도 아니고, 환영받지도 못할 시절이 온 것 같아 씁쓸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원장님.

저는 한일간의 최대 현안이라는 강제징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은 모두 현실성이 없다고 단언합니다(‘문화상안’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요). 국내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들이 타협이나 양보, 리더의 결단, 대국민 설득 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런 덕목이 가장 필요한 사안에서 가장 무시를 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하지요). 저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는 어떤 결정이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타협과 양보를 안 하겠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지에 대해 국민에게 냉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은 생략한 채 모든 책임은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일본에게 있으며,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것처럼 ‘희망고문’을 하는 것은 이제 졸업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양국의 리더십도 이제는 국민의 뜻만 수렴하면 중간은 가는 리더십에서 국익을 위해서라면 상처도 받는 결단의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원장님의 어법을 빌자면 한국의 실책이 곧 일본이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본도 국내외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실책이 많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나라가 동시행동을 해야지, 상대방이 먼저 굽히고 들어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겠다는 선후행동으로는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일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했는데, 요즘 같으면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강하게만 나가면 되니 드디어 한일관계도 관리하기 쉬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해야 하나요.

원장님, 뭐라고요? 당신에 대해서도 분명 호불호가 있을 텐데, 너무 칭찬만 하면 제가 곤란해지지 않겠느냐고요? 30년 이상 기자 생활을 해온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꽤 낯치 않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제 기준은 ‘51대49’ 법칙입니다. 51%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만큼 완벽하지 못한 사람을 많이 봐서 그럴까요, 목에 흠집이 있다고

해서 키를 목부터 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많은 사람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신의 가슴께에 있는 상처가 들통나기 전까지는). 저는 책의 서문에 “그의 구술 중에는 약간의 자랑기도 엿보인다. 하지만 나는 그를 ‘성인군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독특한 인간성과 특이한 업적에 매료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문제 삼을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원장님만큼 알려진 사람이라면 유혹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장님은 정계와 공직 진출, 금전적 유혹을 모두 뿌리쳤습니다(상사로 모셨던 장면 씨가 정권을 잡고 이런저런 자리를 약속했는데도 정권이 오래갈 것 같지 않다며 귀국하지 않은 결정은 절묘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동경한국연구원의 운영비로 뒷돈을 주려고 하자 거절하고 국회를 통과한 예산으로 달라고 했다는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당신의 직함은 수십 년간 국제한국연구원장이 유일했습니다. 유명 인사는 ‘업적’보다는 ‘감투’가 긴 게 보통인데, 원장님은 제가 본 이력서 중에서 ‘감투’보다 ‘업적’이 긴 사람입니다.

제가 지켜본 원장님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첫째 근거를 댄다, 둘째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다, 셋째 늘 공부하는 현역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머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는 “나는 막을 치고 일한 적이 없는데, 나만 보면 막후 실력자라고 한다”고 해서 주변을 웃긴 적이 있으시지요. 만약 지금 건강하시다면 이 글을 읽고는 “자네는 나를 ‘호메고로시’하려고 걱정했구먼”이라고 하실 것 같네요. 필요 이상으로 칭찬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을 ‘호메고로시’라고 하는데, 그 저변에는 ‘악의’가 깔려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그런 악의가 없으니, 요즘처럼 칭찬에 인색한 시대에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은 칭찬받는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의 행복으로 허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원장님.

번역을 하며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책을 쓰거나 논문을 냈더라면 백 편도 넘는 명저와 명논문이 나왔을 것 같은데, 원장님의 저작은 거의 없습니다. 원장님을 잘 아는 어느 학자에게 그런 말을 했더니 “원장님은 책이나 논문을 쓰기보다는 그 시간에 자료를 발굴하는 것이 더 적성에 맞는 분이다. 그분은 그분의 역할을 한 것이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원장님은 여러 학자에게 자료를 나눠주고 책이나 논문을 쓰게 하면서도 당신의 이름을 얹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으시다면서요. 그 또한 원장님답다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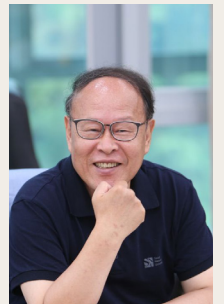
책을 받은 한 지인이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2대 최서면은 어디에 계시나요.” 저는 원장님의 자제분 얘기인 줄 알고 “형제가 미국에 있습니다”라고 답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자료를 읽다 보니 심수관 선생이 생각나서 말이죠. 최서면 선생께서 하신 일을 대를 이어서 하실 분이 계셔야 하지 않을까요. 꼭 피를 나누지 않더라도… 한일관계는 싫든 좋든 영원할 텐데.”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가고시마로 끌려간 도공으로, 사쓰마야키(薩摩焼)라는 명품을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심수관가는 지금 15대 심수관이 가독(家督)을 이어받았고, 16대 심수관도 일찌감치 녹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14대 심수관은 젊었을 적 도공이 되는 걸 원치 않았으나 아버지의 설득에 결국은

가업을 이었고, 1998년 서울에서 ‘400년 만의 귀향-일본에서 꽃피운 심수관가 도예 전’을 열어 관람객 5만 명을 불러모으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도공의 길을 들어서겠다고 결심한 14대 심수관이 13대 심수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대답은 “좋은 작품을 남기라”는 것이 아니고, “네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수관가와 달리 당신의 뒤를 이을 만한 후계자가 없다는 것이 이 지인의 안타까움이겠지요.

그래서입니까. 원장님은 요즘도 정신이 들면 “책을 달라”고 하거나, “언제 일본에 가지”라고 묻는다면서요. 원장님, 이제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원장님은 바람처럼 살았으되, 한 사람이 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원장님에게는 종교가 아니라 인생의 길잡이였다는 가톨릭도 이제는 원장님이 쉬시길 바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할 일은 그저 창밖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병실 밖은 신록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모든 사람이 꽃을 숭상할 때 신록처럼 살고자 했던 당신에게 어울리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이 신록이, 당신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하길 소망합니다.

5월의 어느 맑은 날, 혜화동성당의 종소리를 들으며
심규선 여불비



심규선
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

〈관정일본리뷰〉는 일본이슈 및 한일현안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발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서울대일본연구소가 기획하고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

※ 필진의 글은 일본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